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3주 -

조용한 기도 (Silent Prayer) 시편 95:1-7 다함께

찬 송 (Opening Hymn) 46장(새 31장)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2번(새 19번) 다함께

공동기도 (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상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며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복음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계시록 2:12-17 인도자

찬양 (Anthem) 시온성가대

말씀증언 (Sermon) 이송원 목사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3)

봉 헌 (offering) 374장(새 328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 (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91장(새 353장)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다음 주 예배 후 본당에서 '교회 미래를 위한 3차 회의'로 모입니다.

3. 교우동정

- 출타중인 성도

이진국권사·김성애성도 / 박우서장로·임유신권사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허춘희권사님, 죄은진권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 요한복음 8:29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기적인 신앙, 곧 기복주의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사귀는 통해서 누리는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삶의 동기와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분의 계명,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행위주의에 빠져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늘 하나이셨고,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과 늘 함께 하였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말씀묵상〉 요한계시록 2:12-17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3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12, 16절) 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은 것과 책망받은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13-15절) 내 안에 순전한 믿음을 오염시키는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교훈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은 큰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씩 묵인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위기는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영적인 교훈과 맞물릴 때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경외하시고 금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합리화시켜 마치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케 하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단을 통해 바로 이런 부분을 공략했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수법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흠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연합감리교단의 동성애자 결혼 및 안수 허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것을 도리어 우리의 포용력이 넓어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너그럽고 인자하며 마음이 넓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지만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 인해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니콜라당의 교훈을 받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당은 영혼만이 구원을 얻기에 몸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속인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사상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 심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서 도무지 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에 따라 취하고 있다면 이시대의 니콜라당의 교훈에 미혹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